

여러분 중에 ‘한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라는 말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다녔던 교회에서 ‘한번 구원은 영원하다.’고 가르쳐주어서 저도 그것을 굳게 믿고, 회개하지 않고 ‘이것쯤은 괜찮아. 예수님께서서 우리 죄를 담당하셨잖아?’하고 생각하며 거짓말, 싸움, 욕도 하고, 아무 거리낌 없이 점차 나쁜 짓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한두 번 지었던 죄들을 나중에는 서슴없이 짓게 되었으며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하고 제 자신을 합리화하며 저는 담배도 피고, 술도 마시고, 여자와 음란 죄도 짓고 록 밴드를 하면서 목요일 저녁부터 월요일까지 일주일에 5일 동안 파티 하는 등 방탕한 생활을 하며 지냈습니다. 즐기고 싶은 것을 마음껏 즐겼고 하고 싶은 것, 놓고 싶은 것 모두 자유롭게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저에게 안 좋은 일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났고, 죄의 대가를 톡톡히 치르며 저는 주님 앞에 깊이 회개하게 되었고, 성령을 받아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열심히 따르기 시작할 즈음 제가 또 다시 죄를 지었을 때 주님께서 꿈에서 “마태복음 5:20”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를 능가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결코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니,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 게 아닌가?’ 하며 저는 너무 놀라서 이것을 가지고 좀 더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의 어느 구절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사도행전 16:31) 라고 쓰여 있고, 다른 구절을 보면 예수님을 이미 믿는 신도들에게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속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자나 간음하는 자나 여성화된 남자나 남자와 더불어 자신을 욕되게 하는 남자나 도둑질하는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욕하는 자나 착취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고린도전서 6:9-10) 라고 죄짓는 삶을 경고합니다.

언뜻 보기에 성경에 반대되는 뜻을 가진 구절들이 있기에 주님께 기도하던 중, 주님께서서는 성경의 어느 한 구절을 버릴 수 없고, 또한 한 성경 구절도 절대 거짓말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요한복음 10:35) 어느 날, 제가 빵에 땅콩

버터와 포도 젤리를 발라 먹고 있을 때에 깨달음이 임했습니다. 빵 한쪽에는 땅콩 버터, 다른 빵 한쪽에는 포도 젤리. 이같이 틀린 성분이 뭉쳐 하나의 빵이 되는 것을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 성경도 똑같구나.” 한쪽에는 믿음으로 구원, 다른 쪽에는 불의하게 살면 지옥. 사람은 자신의 의로운 행위로 천국에 가는 게 아니고 오직 주님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고 믿음의 은혜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거룩하게 살지 않고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면 주님께서도 그날에 그들을 버리신다는 것입니다.(누가복음 13:3) 주님께 “주여, 주여” 하며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마태복음 7:23)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빌립보서 2:12)

원래 믿음 ‘faith’ 이란 뜻은 그냥 믿는 게 아닙니다. ‘faithful’ 이란 충성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faith’ 란 것은 목숨까지 바칠 수 있는 충성된 믿음, 말씀을 타협하지 않는 굳센 충성된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믿으면 구원의 길로 가지만, 우리는 언제나 주님을 떠날 수 있으며 죄악을 떠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엔 지옥으로 갑니다. 저는 이 후에도 주님께 여러 차례 이것에 대하여 계속 물어봤는데 같은 답과 성경구절들을 되풀이하여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그것들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히브리서 12:14)

“그분께서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참고 꾸준히 잘 행함으로 영광과 존귀와 죽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으로 갚으시고 논쟁하기 좋아하며 진리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의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격노와 진노로 갚으시리라.” (로마서2:6-8)

제가 옛날부터 알던 친구는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었는데 세상의 미혹과 쾌락을 찾아 살다가 결국 마약에 빠져 심장이 멈춰 죽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제게 비밀스럽게 말해 주었는데 자신의 심장이 멈추었을 때 자신의 영이 깜깜한 지옥 아래로 내려가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살아왔던 삶이 영화처럼 빠르게 보이고 그 끝에는 주님의 사명이 있었던 것을 알게 되어 “주님, 주님을 다시 섬기고 싶습니다.” 하며 깊이 회개를 했더니 갑자기 위에서 큰 손이 자기의 영을 잡아 끌어올려 몸으로 다시 들어왔다고 이야기 해주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믿었던 이유는 그가 예전에 마약을 했던 것을 알았고, 또 저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는 동안 그의 주위가 너무나 밝은 영광의 빛으로 가득 차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도 죄를 지었을 때 주님의 천사가 와서 두렵고 떨리는 경고 메시지를 주었을 뿐 아니라 죄를 지을 때마다 주님께서 저에게 더욱 가혹한 벌을 내리셔서 저는 죄를 가볍게 보지 않고 중하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로마서 8:1) 대부분의 한국 성경 번역에서는 이 구절의 절반이 지워져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이 구절을 반으로 잘라서 “정죄함이 없나니.” 여기까지만 성경에 번역을 한 것입니다. 정말 잘못된 일입니다. 여러분의 성경을 확인해보십시오. 이것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만 믿고 있으면 절대 정죄함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반인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를 집어넣게 되면 믿는 자에게 정죄함이 없는 조건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않고 성령을 따라 걷는다는 데에 있습니다. 육신을 따라 걸으면 죄를 짓게 되고, 성령을 따르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연합하여 죄를 짓게 되더라도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회개를 하도록 감동하기 때문에 회개한 그들에게는 정죄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 놓으리오? 환난이나 곤경이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벌거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 있을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 놓지 못하리라.” (로마서 8:35, 38-39)

사람들은 이 구절로 아무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떼어 놓을 수 없다고 하여 구원을 절대 잃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마귀라 할지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떼어놓을 수 없지만 우리가 스스로 주님의 말씀을 배반하여 주님을 떠날 수는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유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에 주의를 기울이리라”(디모데전서 4:1)

또 다른 구절인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에베소서 2:8-9) 사람들은 또한 이 구절을 가지고 행함이 없어도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우리의 좋은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흘리신 보혈로 온전케 되고 죄를 사함 받는 것이지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 받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은혜를 짓밟고 사랑을 배신하여 죄를 따라 구원을 떠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 같은 믿음을 죽은 믿음, 즉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사람이 자기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위가 없으면 그것이 무슨 유익을 주느냐?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오 허무한 사람아, 행위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인 줄 네가 알고자 하느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위와 함께 일하고 행위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지 아니하였느냐?”(야고보서 2:14, 20, 22) 이렇게 행위는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다는 것을 증거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에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려는 행함이 없다면 죽은 믿음이고, 구원받을 수 없는 믿음입니다. 구원의 길을 걷기가 힘드십니까? 매일 기도하십시오. “주님, 주님을 따르기가 힘듭니다. 힘을 주소서! 이 죄악을 저 혼자 힘으로 이겨낼 수

없습니다. 이 죄를 가져가 주소서! 힘을 주소서!” 매일 기도를 하시면 놀라운 주님의 은혜의 능력을 볼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주님을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하여 제일 사랑하고, 또 우리 이웃을 우리 몸처럼 사랑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남을 용서하고 이웃을 긍휼히 여겨 사랑을 행하면, 우리도 사랑과 긍휼을 받아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 긍휼을 베풀지 않은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을 받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기뻐하느니라.”(야고보서 2:13) 이런 긍휼의 마음이 없으시다면 매일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십시오. “주님, 저에게 긍휼하게 여기는 마음을 주소서! 저의 악한 마음을 가져가 주소서! 사랑의 마음을 주소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되어 있으니, 믿음을 떠나 마귀를 따라 살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자살하면, 죄악을 행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한 번 믿었다 해도 자살하거나,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의 죄가 용서받지 못하고 지옥에 가는 것이니 한번 믿고 영원히 구원받는다라는 말은 틀린 가르침입니다. 남을 살인하고, 남에게 사기치고, 간음하고 ‘뭐 어때? 믿으면 천국 가는데.’ 하며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천국에 간다면 그것이 정말 잘못된 것이 아닐까요? 주님은 공의의 심판자이십니다. 그분은 회개도 하지 않는 이런 교만한 사람을, 사기 쳐서 남을 빚쟁이로 만들어 자살하게 만든 악한 그리스도인을 절대 천국에 보내지 않습니다. 남의 여자와 간음하여 그들의 가정을 깨뜨린 악한 그리스도인을 천국 보내지 않습니다. 그가 진심으로 회개하여 죄에서 돌이킬 때에 그를 비로소 의롭다 하여 보혈로 씻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십자가에 매달린 두 강도 중에서 주님을 믿는 강도가 낙원에 들어갔다고 하여 믿기만 하면 구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구절들을 자세히 보면 그 강도의 이미 회개한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합당한 보응을 받으니 참으로 공정하게 정죄를 받거니와 이 사람은 아무 잘못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고 예수님께 이르되,

주여, 주께서 주의 왕국으로 들어오실 때에 나를 기억하옵소서.”(누가복음 23:40-42) 그 강도는 자기를 구원해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나를 기억하옵소서.” 라고 자신은 이미 천국 들어가기에는 부족한 죄인임을 인정하는 회개하는 마음의 자세를 볼 수 있습니다. 다른 강도는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며 오히려 교만하게 주님께 구원하라고 요구 하였습니다 “그분을 욕하며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이거든 네 자신과 우리를 구원하라”(누가복음 23:39). 주님은 이렇게 교만하여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강도를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마음을 가진 강도에게는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누가복음 23:43)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통회하는 회개가 가득한 겸손한 마음을 꼭 가져야 합니다. “난 믿으니 이미 구원받았어!” 라고 교만하게 말하지 마십시오. 오직 겸손하게 “주님, 이 죄인의 모든 죄를 용서해주시고 불쌍히 여겨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고 지은 모든 죄를 항상 고백하고 회개하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십시오.

아직도 잘 모르겠다면 겸손히 기도할 때 주님께서 가르쳐주시리라 믿습니다.

만약 제 가르침이 틀리다면 믿으므로 천국에 가서 잃을 것이 없지만, 만약 이것이 옳다면 회개하지 않고 마음대로 죄짓고 살다가 심판하시는 날에 정죄를 받아서 지옥에 가게 됩니다. 구원은 도박으로 믿을 일이 절대 아닙니다. 이렇게 믿으면 이것이 틀릴지라도 천국에 가고 상급 받을 일 밖에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번 믿으면 영원한 구원이야.” 하며 회개하지 않고 잘못 믿다가 지옥에 갈 수 있으니 절대 여러분의 생명으로 도박하지 마시고 항상 죄를 지으면 회개하시고 마지막 돌아가시는 날까지 반드시 모든 죄를 회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믿기만 한다고 영원히 구원이라는 것을 부정하는 성경 구절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신약에서만 찾는다 해도 너무 많기 때문에 더욱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육신의 행위들은 명백하니 이것들이라. 곧 간음과 음행과 부정함과 색욕과 우상 숭배와 마술과 증오와 불화와 경쟁과 진노와 다툼과 폭동과 이단 파당과 시기와 살인과 술 취함과 흥청댐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내가 또한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 같이 이것들에 대하여 미리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런 것들을 행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지 못하리라.” (갈라디아서 5:19-21)

“하나님의 집에서 반드시 심판을 시작할 때가 이르렀나니 만일 그것이 우리에게서 먼저 시작되면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지막은 어떠하겠느냐? 또 의로운 자가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모습을 나타내겠느냐?” (베드로전서 4:17-18)

“이기는 자는 모든 것을 상속받으리니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마법사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쟁이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에서 자기 몫을 받으리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니라.” (요한계시록 21:7-8)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 속에 던져지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는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이르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대언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내쫓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놀라운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였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하리라.” (마태복음 7:19-23)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이 갈릴리 사람들이 그런 일들로 고난을 당하였으므로 그들이 모든 갈릴리 사람들보다 더 큰 죄인이었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그러나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그와 같이 멸망하리라.” (누가복음 13:2-3)

“다만 네가 네 강박함과 뉘우치지 아니하는 마음에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닥칠 진노를 네게 쌓아 올리는도다. 그분께서 각 사람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으시되 참고 꾸준히 잘 행함으로 영광과 존귀와 죽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으로 갚으시고, 논쟁하기 좋아하며 진리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의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격노와 진노로 갚으시리라. 악을 행하는 사람의 모든 혼 위에 환난과 곤고가 닥치리니 먼저는 유대인의 혼 위예요 또한 이방인의 혼 위이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광과 존귀와 화평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이방인에게로다.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라. 율법 밖에서 죄를 지은 자들은 또한 다 율법 밖에서 멸망하고 율법 안에서 죄를 지은 자들은 다 율법으로 심판을 받으리니” (로마서 2:5-12)

“사랑하는 자들아, 공통의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쓰려고 모든 열심을 내던 차에 성도들에게 단 한 번 전달된 믿음을 위해 너희가 힘써 싸우라고 너희에게 써서 권면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알지 못하는 가운데 기어 들어온 어떤 자들이 있기 때문이라. 그들은 이 정죄를 받도록 옛적부터 미리 정해진 자들이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색욕거리로 바꾸고 유일하신 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라. 그러므로 비록 너희가 전에 이것을 알았을지라도 내가 너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곧 주께서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구원하시고 그 뒤에 믿지 않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또 자기들의 처음 신분을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들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 때까지 영존하는 사슬로 묶어 어둠 밑에 예비해 두셨는데 이것은 소돔과 고모라와 그것들의 주변 도시들이 같은 방식으로



자기를 음행에 내주고 낫선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로 보복을 당하여 본보기가 된 것과 같으니라. 또 그와 마찬가지로 이 추악한 꿈꾸는 자들도 육체를 더럽히고 통치권을 멸시하며 위엄 있는 자들을 비방하는도다. 그러나 천사장 미가엘도 모세의 몸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며 논쟁할 때에 감히 그에게 욕설로 비난하지 아니하고 다만 이르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 원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이들은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그것들을 비방하고 또 이성 없는 짐승들같이 자기들이 본능으로 아는 것 즉 그것들로 인하여 스스로를 부패시키느니라. 그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그들이 가인의 길로 갔으며 대가를 바라고 발람의 잘못을 따라 탐욕을 내며 달려갔고 고라의 반역 가운데서 멸망하였도다. 아담으로부터 일곱째 사람인 에녹도 이들에 관해 대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자신의 수만 성도와 함께 오시나니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심판을 집행하사 그들 가운데 경건치 아니한 모든 자들이 경건치 아니하게 범한 모든 경건치 아니한 행위와 또 경건치 아니한 죄인들이 그분을 대적하여 말한 모든 거친 발언에 대하여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들은 투덜거리는 자들이요 불평하는 자들이며 자기 정욕대로 걷는 자들이니라. 그들의 입은 크게 부풀린 말을 하며 이득을 위해 사람들의 외모에 감탄하느니라.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전에 한 말들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마지막 때에는 자기들의 경건치 아니한 정욕대로 걷는 조롱하는 자들이 있을 것을 일러 주었는데 이들은 자기를 분리시키는 자들이며 육체적 감각대로 살고 성령이 없는 자들이니라.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너희 자신을 세우며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너희 자신을 지키며 영원한 생명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활을 기다리라. 차이를 두어 어떤 사람들은 불쌍히 여기고 또 다른 사람들은 불에서 끄집어내어 두려움을 가지고 구원하되 육체로 더러워진 옷조차도 미워하라.” (유다서 1:3-23)

“오직 내가 내 몸을 억제하여 복종시킴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한 뒤에 어떤 방법으로든 내 자신이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9:27)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너희 속으로,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로 있다, 하고 말하기 시작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께서는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에게 자손들을 일으키실 수 있느니라. 이제 또한 도끼가 나무들의 뿌리에 놓였으니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 속에 던져지느니라. 하니라.” (누가복음 3:8-9)

“또한 형제들아, 나는 이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곧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모두 바다를 지나가며 모두가 구름과 바다 속에서 모세에게로 침례를 받고 모두가 같은 영적 음식을 먹으며 모두가 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느니라. 그들이 자기들을 따라가던 영적 반석으로부터 마셨는데 그 반석은 그리스도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 중의 많은 사람들을 매우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쓰러졌느니라. 이제 이런 일들이 우리의 본보기가 되었으니 이것은 그들이 탐한 것 같이 우리도 악한 것들을 탐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들 중의 어떤 자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말라. 이것은 기록된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의 어떤 자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이만 삼천 명이 쓰러졌으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또한 그들 중의 어떤 자들이 그리스도를 시험하다가 뱀들에게 멸망을 당하였으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또한 그들 중의 어떤 자들이 불평하다가 파멸시키는 자에게 멸망을 당하였으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불평하지 말라. 이제 이 모든 일은 그들에게 본보기로 일어났으며 또 그것들은 세상의 끝을 만난 우리를 훈계하기 위해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스스로 서 있는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지 않도록 주의할지니라.” (고린도전서 10:1-12)

“이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그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또 너희가 진리를 알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시니라. 그들이 그분께 응답하되, 우리는 아브라함의 씨로서 결코 누구에게도 속박된 적이 없거늘 어찌 네가 이르기를, 너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니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항상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게 되리라.”

(요한복음 8:31-36)

“순수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순수하나 더럽혀지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순수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의 생각과 양심마저도 더럽혀져 있느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고백하나 행위로는 그분을 부인하니 그들은 가증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이요 모든 선한 일에 대해 버림받은 자들이니라.” (디도서1:15-16)

“그때에 하늘의 왕국은 마치 자기 등불을 가지고 신랑을 맞으러 나아간 열 처녀와 같으리라.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된 자들은 그와 함께 혼인 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히니라. 그 뒤에 다른 처녀들도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하나 그가 응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마태복음 25:1,10-12)

“그때에 그가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도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내게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내가 목마를 때에 너희가 내게 마실 것을 주지 아니하였으며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너희가 나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너희가 내게 옷을 입히지 아니하였으며 병들었을 때와 감옥에 갇혔을 때에 너희가 나를 찾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리니 그때에 그들도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느 때에 우리가 주께서 주리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감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주를 섬기지 아니하더이까? 하리라. 그때에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이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그것을 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리라. 그리하여 이들은 영존하는 형벌에 들어가되 의로운 자들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5:41-46)

“만일 그들이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통해 세상의 오염에서 벗어난 뒤에 다시 그 안에 말려들어 정복되면 마지막 끝이 처음보다 그들에게 더 나쁘니 그들이 의의 길을 안 뒤에 자기들에게 전달된 거룩한 명령에서 돌아서는 것보다 차라리 그것을 알지 못한 것이 그들에게 더 나았으리라. 그러나, 개는 자기가 토한

것으로 되돌아가고 씻긴 돼지는 진창 속에서 퉁군다, 하는 참된 잠언에 따라 그 일이 그들에게 일어났도다.”(베드로후서 2:20-22)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 을 발로 밟고 자기를 거룩히 구별한 언약의 피를 거룩하지 아니한 것으로 여기며 은혜의 영 께 무례히 행한 자가 당연히 받을 것으로 생각되는 형벌은 얼마나 더 극심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해 보라.” (히브리서10:29)

“예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에서 나고 성령에게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3:3, 5)

(마태복음 7:13-14, 에베소서 5:3-8, 히브리서 10:26-29, 6:4-8, 누가복음 15:32, 빌립보서 3:11-12 등등 이있습니다.)



